



한국 정치 상황 관련 주요국 반응을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 공유

- 긴급 재경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12.4(수) 오후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되어 본부와 주재국 정부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 (미국(워싱턴·뉴욕)·중국(북경·상해)·일본·독일·영국·프랑스·벨기에·러시아 8개국 재경관 10명 참석)

이번 회의는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을 살피는 한편, 국내 금융·외환시장 현황과 주요 정책 대응 현황 공유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재경관들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주재국 정부, 언론 반응* 등 주재국의 반응을 전달하였다.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곧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경제·금융시장 내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의 분석 내용을 공유하며,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인 기업·투자자들의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전달하였다.

* (미국) 美 정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환영, 주요 언론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실 위주 보도 (일본) 비상계엄 진행 경과, 원화 가치 하락 등 사실 위주로 보도하면서 향후 영향에 촉각

김 차관은 지난밤 변동성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기재부 1차관 팀장)를 운영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재경관들에게 국내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서기관 김미진 (harue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권기민 (kicpam@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